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Social Competence :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전정미(Jung Mi Jun)¹⁾

유미숙(Mee Sook Yoo)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on social competence. Subjects were 474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s of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 statistics program. Findings were that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has an effect on child's social competence and on emotional intelligence. Higher perception of child's own emotional ability was associated with higher sociability, social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creased perception of the emotional ability of others was associated with higher sociability, interpersonal adjustment, social participation, leadership, and popularity.

Key Words :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아동의 정서지능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사회적 유능성 (social competence).

I. 서 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며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의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운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인간관계로써 자

녀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떠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잘못된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갈

* 본 논문의 자료는 2006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의 일부임.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ng-Mi J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yochangWon st.52, Chungpa-dong,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E-mail : healingmi@hanmail.net

등을 심화시키거나 긴장을 유발시켜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의 조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조력적 의사소통은

Rogers(1951)와 Carkhuff(1969)등이 효율적 상담을 위해 인간 관계 조건으로 제안한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적 이해, 존중, 솔직성,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의 태도에 의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의 제반 특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적 의사소통”인 것이다. 정세용(1994)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자녀를 조건없이 존중하며 어른으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와 촉진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아동은 심리적 안정과 성숙을 하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적게 하고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하여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사회-부적응 등을 포함한 자녀의 문제행동이 유발되지만(고상미, 2000), 반면 의사소통이 촉진적이면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정세용, 1994) 보고하였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최고의 교육자이고 가장 장기간에 걸쳐 통제력과 영향력을 갖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및 양육방법은 자녀의 성격 즉, 정서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

Salovey와 Mayer(1996)는 개인의 정서적 기술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Golmen(1995)은 영·유아기의 정서적 경험의 성장한 이후의 정서반응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발

달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였다. 즉, 정서는 환경 내에서 분화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은 아동의 정서 발달의 외적 요인으로써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Ginott(1965)와 Gorden(1975)은 부모의 진솔한 감정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한 바 있으며, 부모의 정서와 감정이 상하면 결코 어린이의 정서와 감정은 건전하게 수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인숙(1997)에 따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서지능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자기 동기부여, 자기감정관리, 타인 감정관리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이 훨씬 높았다.

고인숙(2005)에 의하면,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가 유의미하며,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별로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능력에서 보이는 차이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심혜숙·왕정희(2001)의 연구결과,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사회적 성공에 필수적이라면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해 정서지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주리, 2002; 김경희·황혜정, 1999; 최은지, 2003).

또한 김경희와 황혜정(1999), 그리고 Salovey와 Mayer(1990)의 연구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원만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김선주(2002), 심혜숙과 왕정희(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 일수록 대인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였고, 개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자들은 가족 맥락에서 습득되는 행동들이 자녀의 사회화로 전이되는 매카니즘을 규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화를 연결하는 매카니즘으로서 정서의 encoding decoding 기술, 정서조절 기술, 인지 표상, 귀인, 문제 해결 기술 등의 구체적 과정이 가설화되어 검증되어 왔다. 이처럼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로 아동의 정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김주분, 1994; 김현숙, 1999; 김희영, 1999; 정세용, 1994; Coopersmith, 1967; Galvin & Brommel, 1982),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영환·김현지, 2001; 이인숙, 1997; Bornstein et al., 1993; 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6), 그리고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문용린, 1997; 박금옥, 1998; Golman, 1995; Putallaz & Sheppard, 1992) 각각의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있었으나, 세 개의 변인들을 함께 본 연구는 없다. 즉 부모-자녀관계 중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를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해봄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더 깊게 이해하고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확인하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유능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교육에서 자녀와의 대화 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담개입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들이 설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 정서 및 사고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

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로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 자신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 이렇게 3가지 질문지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이다. 질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여 51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총 37부를 제외하고, 총 474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 '정서지능검사', '사회적 능력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khuff(1967)의 상담자의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하여 마정건(1988)이 제작하고 정세용(1994)이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해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보려는 것으로, 하위척도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의 7개의 변인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에 7문항씩 총 49문항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는 Thurstone식 척도로, 응답에 대한 채점은 1수준 1점, 2수준 2점, 3수준 3점, 4수준 4점, 5수준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역채점은 없으며, 7개의 하위검사 점수와 총점을 계산하고자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

며, 본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이다.

2)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지능 검사는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6)이 제작한 정서지능검사로 초등학교 고학년용(초등학교 3-6학년)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정서지능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바를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 하위척도는 자기정서인식 5문항, 타인정서인식 3문항, 정서표현 7문항, 감정이입 7문항, 정서조절 15문항, 정서활용 10문항으로써 전체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지능 검사는 Likert식 척도이며, 정서표현과 정서활용 하위요인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0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유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금옥(1998)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바를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보고식검사로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1=어찌다 그렇다, 2=가끔 그렇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고 역채점은 없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6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설문지 배포일로부터 3~4일 후에 연구자가 학교로 찾아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5)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며 정서지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촉진적 의사소통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중 무조건적 존중은 사회적 유능성의 사교성($\beta=.17, p<.01$), 대인적응성($\beta=.30, p<.001$), 인기도($\beta=.21,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순수성은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회참여도($\beta=.12, p<.05$)에, 구체성은 주도성($\beta=.13,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사교성	대인 적응성	사회 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β	β	β	β	β
공감적 이해	-.04	-.08	.01	.01	-.03
무조건적 존중	.17**	.30***	.04	.12	.21**
순수성	-.02	-.00	.12*	.03	.09
구체성	.11	.02	.00	.13*	.10
직 면	.03	.05	.08	.06	.00
자아개방	.00	-.07	.01	-.06	.01
즉시성	.10	.11	.03	.04	.07
R^2	.08	.10	.05	.07	.08
F	6.62***	7.83***	4.33***	6.14***	6.73***

* $p<.05$ ** $p<.01$ *** $p<.001$

즉, 어머니가 무조건적 존중을 표현하며 대화 할수록 아동은 사교적이며 대인관계에서 적응성과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할수록 아동의 사회참여도가 높으며, 어머니가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할수록 아이의 주도성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촉진적 의사소통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공감적

<표 2>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기 정서 인식	타인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정서 활용
	β	β	β	β	β	β
공감적 이해	-.08	.11**	-.01	.00	-.00	.06
무조건적 존중	.03	.08	.07	.07	.19**	.23**
순수성	.19**	.12	.19**	.06	.10	.02
구체성	-.02	.04	.04	.03	-.03	.13*
직 면	.01	.01	.03	.07	.05	.03
자아개방	-.00	-.04	.02	.05	.07	-.01
즉시성	.05	.03	-.05	.06	.02	.10
R ²	.03	.03	.03	.06	.11	.05
F	2.81**	2.93**	3.34**	5.34***	9.47***	4.40***

* $p<.05$ ** $p<.01$

이해는 아동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인식($\beta=.11,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조건적 존중은 정서조절($\beta=.19, p<.01$), 정서활용($\beta=.23,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순수성은 자기 정서인식($\beta=.19, p<.01$), 정서표현($\beta=.19,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성은 정서활용($\beta=.13, p<.05$)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머니가 공감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타인정서인식 능력은 높으며, 어머니가 무조건적 존중을 표현하며 대화할수록 자녀의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할수록 아동 자신에 대한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대화할수록 아동의 정서활용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인식은 사교성($\beta=.10, p<.05$), 사회참여도($\beta=.14, p<.01$), 주도성($\beta=.09,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정서인식은 사교성($\beta=.20, p<.001$), 대인적응성($\beta=.17, p<.001$), 사회참여도($\beta=.17, p<.001$), 주도성($\beta=.25, p<.001$), 인기도($\beta=.24, p<.001$)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서표현은 사교성($\beta=.10, p<.05$), 대인적응성($\beta=.08, p<.05$), 사

〈표 3〉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사교성	대인 적응성	사회 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β	β	β	β	β
자기정서 인식	.10*	.03	.14**	.09*	.03
타인정서 인식	.20***	.17***	.17***	.25***	.24***
정서표현	.10*	.08*	.16***	.08*	.06
감정이입	.02	.18***	.06	.07	.03
정서조절	.27***	.24***	.25***	.25***	.24***
정서활용	.08	.15***	-.06	.04	.09*
R ²	.22	.27	.21	.24	.19
F	22.50***	30.08***	21.74***	25.77***	19.21***

* $p<.05$ ** $p<.01$ *** $p<.001$

회참여도($\beta=.16$, $p<.001$), 주도성($\beta=.08$,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감정이입은 대인적응성($\beta=.18$,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조절은 사교성($\beta=.27$, $p<.001$), 대인적응성($\beta=.24$, $p<.001$), 사회참여도($\beta=.25$, $p<.001$), 주도성($\beta=.25$, $p<.001$), 인기도($\beta=.24$, $p<.001$)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서활용은 대인적응성($\beta=.15$, $p<.001$)과 인기도($\beta=.09$,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 정서인식 능력이 높을수록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이 높고 타인 정서인식 능력이 높을수록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표현을 잘하는 아동일수록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적응성이 높으며,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적응성과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대적 영향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을 통제했을 때와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사교성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정서조절($\beta=.24$, $p<.001$), 타인정서인식($\beta=.19$, $p<.001$), 구체성($\beta=.12$, $p<.05$), 순수성($\beta=-.11$, $p<.05$), 자기정서인식($\beta=.10$, $p<.05$), 정서표현($\beta=.10$, $p<.05$)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성에는 정서조절이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인정서인식, 구체성, 순수성, 자기정서인식, 정서표현이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구체적이고 순수하게 의사소통하고, 자녀의 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 자기정서인식, 정서표현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교성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대인적응성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영향력을 분석할 결과, 대인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조절($\beta=.22$, $p<.001$), 무조건적 존중($\beta=.19$, $p<.001$), 감정이입($\beta=.17$,

〈표 4〉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β	β	β	β	β
공감적 이해	-.02	-.07	.04	.04	-.01
무조건적 존중	.08	.19***	-.03	.04	.12*
순수성	.11*	-.07	.02	-.05	-.07
구체성	.12*	.03	.01	.14**	.10*
직면	.01	.03	.06	.04	-.01
자아개방	-.02	-.11*	-.02	-.08	-.02
즉시성	.08	.08	.03	.01	.05
자기정서인식	.10*	.02	.14**	.09*	.03
타인정서인식	.19***	.16***	.16***	.25***	.23***
정서표현	.10*	.07	.15***	.07	.04
감정이입	.00	.17***	.04	.06	.01
정서조절	.24***	.22***	.24***	.23***	.20***
정서활용	.08	.14**	-.05	.05	.09*
R ²	.23	.29	.21	.25	.21
F	11.89***	5.66***	10.32***	13.14***	0.30***

* $p<.05$ ** $p<.01$ *** $p<.001$

$p<.001$), 타인정서인식($\beta=.16, p<.001$), 정서활용($\beta=.14, p<.01$), 자아개방($\beta=-.11, p<.05$)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대인적응성에는 정서조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조건적 존중, 감정이입,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자아개방이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아이와 대화하고, 자녀의 정서조절, 감정이입,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적응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사회참여도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

지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정서조절($\beta=.24, p<.001$), 타인정서인식($\beta=.16, p<.001$), 정서표현($\beta=.15, p<.001$), 자기정서인식($\beta=.14, p<.01$)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참여도에는 정서조절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인정서인식, 정서표현, 자기정서인식이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 자기정서인식, 정서표현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참여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주도성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타인정서인식($\beta=.25, p<.001$), 정서조절($\beta=.23, p<.001$), 구체성($\beta=.14, p<.01$), 자기정서인식($\beta=.09, p<.05$)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도성에는 타인정서인식이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조절, 구체성, 자기정서인식이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타인정서인식, 정서조절, 자기정서인식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주도성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인기도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타인정서인식($\beta=.23, p<.001$), 정서조절($\beta=.20, p<.001$), 무조건적 존중($\beta=.12, p<.05$), 구체성($\beta=.10, p<.05$), 정서활용($\beta=.09, p<.05$)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인기도에는 타인정서인식이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조절이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자녀의 타인정서인식과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기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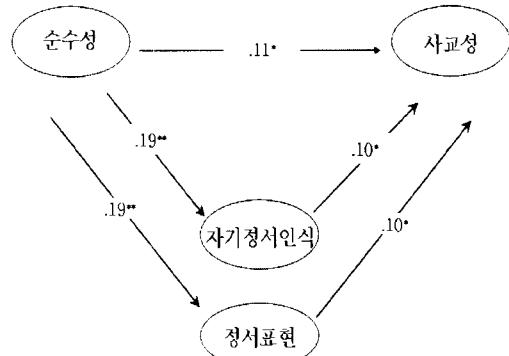
5.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경로 탐색

아동의 정서지능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먼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태의 순수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추출하였다. 다음은 그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과 표준화 계수 베타(β)를 가지고 사회적 유능성의 각 하위요인별로 경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사회참여도, 주도성은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매개변인이 존재하지 않아 경로도에서 제외시켰다.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사교성 간의 경로 분석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교성에 어떠한 매개변인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 결과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중 순수성은 아동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인식($\beta=.19, p<.01$)과 정서표현($\beta=.19, p<.01$) 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기정서인식($\beta=.10, p<.05$), 정서표현($\beta=.10, p<.05$)과 사교성 간의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그림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사교성 간의 경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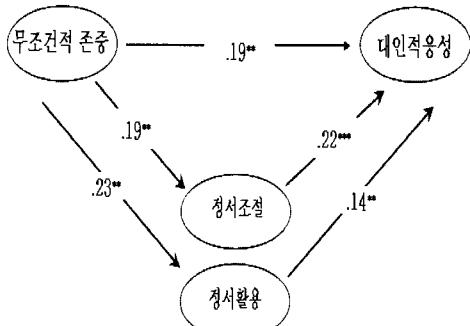
분석결과,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순수성이 그리고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수성이 사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정서인식과 정서표현에 의해 매개되어 사교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대인적응성 간의 경로 분석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대인적응성에 어떠한 매개변인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 결과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중 무조건적 존중과 정서조절 간의 경로($\beta=.19, p<.01$), 무조건적 존중과 정서활용 간의 경로($\beta=.23, p<.01$)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과 대인적응성 간의 경로($\beta=.22, p<.001$), 정서활용과 대인적응성 간의 경로($\beta=.14, p<.01$)도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무조건적 존중이 그리고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이 아동의 대인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



〈그림 2〉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대인적응성 간의 경로도

조건적 존중이 대인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 정서활용에 의해 매개되어 대인적응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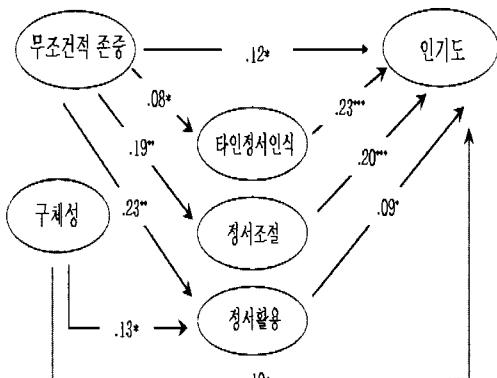
3)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인기도 간의 경로 분석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인기도에 어떠한 매개변인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 결과 모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중 무조건적 존중은 타인정서인식($\beta=.08, p<.05$), 정서조절($\beta=.19,$

$p<.01$), 정서활용($\beta=.23, p<.01$) 간의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타인정서인식과 인기도 간의 경로($\beta=.23, p<.001$), 정서조절과 인기도 간의 경로($\beta=.20, p<.001$), 정서활용과 인기도 간의 경로 ($\beta=.09, p<.05$)는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중 구체성이 정서활용 간의 경로($\beta=.13, p<.05$)는 유의미하였으며, 정서활용과 인기도 간의 경로($\beta=.09, p<.05$)는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무조건적 존중이 그리고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이 아동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구체성이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정서활용이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조건적 존중이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성이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활용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인기도 간의 경로도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앞서 제기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

라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첫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요인 중 무조건적 존중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사교성, 대인적응성,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대화를 할 때, 아이는 유능한 행동을 더 나타내고 친구를 쉽게 사귀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또래에게 인기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자녀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자녀와 촉진적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성숙하게 되며 가정과 학교에서 부적응적인 문제 행동을 적게 한다는 선행연구(김주분, 1994)를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상대의 인성을 알게 되고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미호, 1989)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아이를 단지 어린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면 대화할 때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져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유능하게 행동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요인 중 순수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어른으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와 촉진적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은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감정을 나타내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최홍규, 2000)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머니의 순수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사회성, 성취성, 활동성과 관계가 있다는 김희영(199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권위의식을 버리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 또한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학교 생활,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적인 생활을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요인 중 구체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화 시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할 때, 아이는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주도하고 친구들에게 지시를 잘하며 그러한 행동을 친구들이 잘 따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사회성과 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김희영, 199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대해 대화로서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아이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되고 이로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신감을 갖게 되어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이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학교, 상담장면 등에서 아이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첫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요인 중 공감적 이해가 아동의 정서지능 중 타인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자녀를 이해해 줄 때, 자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구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민감하고 적절한 감정 이입적 반응이 아동의 정서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inott, 1965; Gorden, 1975; Mayer & Salovey, 1996)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감정 표현 방식을 비난하고 자녀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Goleman(199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아이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줄 때, 아이는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감정이입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전이시켜 타인에 대한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요인 중 무조건적 존중이 아동의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할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문제 해결 및 창의적 과제 해결 시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애정과 신뢰로써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이영환·김현지, 2001)와 유사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pitz, 1946; Bowlby, 1971)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셋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순수성이 아동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인식과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어른으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아이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할 때 자녀는 각 상황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파악하며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자녀간이 개방적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정서인식과 정서표현 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영환·김현지,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정서능력은 성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는 O'Neil(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명령적 유형보다는 인성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 유아의 정서지능은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이현이, 2001; 박혜경, 200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앞서 제시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향상을 위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서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첫째, 아동의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과 타인정서인식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이해하며 스스로 정서를 잘 통제할수록 또래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함께 친밀하게 어울리며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

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나 사회생활에 보다 잘 적용한다는 선행연구(Rosenthal, 1977; 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윤현석, 1997)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통제하며, 타인의 대한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은 사회생활에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정서지능 수준과 사회적응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Mayer & Salovey, 1990; 박금옥, 1998)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인식이 사회적 유능성 중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감정을 맥락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이해할수록 또래와 친밀하게 어울리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그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과 사회성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Mayer & Salovey, 199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 즉, 공감능력이 사회적 유능성 중 대인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동일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감능력과 사회성과는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Mayer & Salovey, 1990; Rosenthal, 1977)와 일치한다.

넷째, 아동의 정서지능 중 정서표현이 사회적 유능성 중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은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유능성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한 Golman(199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유능성에서 특히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정서지능의 발달은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을 위한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적용의 사전·사후 차이를 알아본 효과검증 등을 들 수 있다.

4)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 중 영향력이 큰 변인을 알아본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서조절(Denham, Mckinley, Couchoud, 1990; Mayer & Salovey, 1990;)과, 타인정서인식(Rosenthal, 1977)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서를 상황과 맥락에 맞도록 변화시키거나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 유지시킬 수 있을수록, 아동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유능한 행동을 바탕으로 또래와 친사회적으로 어울리며 자신있게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보다는 아동의 정서지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5)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성 간의 경로 탐색

아동의 정서지능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는지 알아본 결과,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 대인적응성, 인기도에서 경로도가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순수성은 사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무조건적 존중은 대인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에 의해 매개되어 대인적응성에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무조건적 존중이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구체성이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활용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직접효과 외에 자녀의 정서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잠재 능력의 성장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까지 초점을 맞춰 자녀가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긍정적으로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의 정서발달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더 발달됨을 확인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무조건적 존중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때, 아이는 친구와 쉽게 친해지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한 행동을 더하게 되며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으로 친구와 어울려 또래에게 인기도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자녀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을 잘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며 대화를 할 때, 자녀 또한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구의 감정을 민감하게 재빨리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스스로 통제하고 타인에 대한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맥락에 맞게 이해하며 스스로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는 아동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유능하게 행동하여 친밀하게 또래와 어울릴 수 있었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의 간접적인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녀의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정세용, 1994; 한영신 · 김광웅, 2002)들은 아동의 발달에서 어

머니의 역할 못지않게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머니의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전체 가족체계의 맥락 속에서 대상을 선정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Thurstone 척도로 이러한 측정방법은 응답자가 원하는 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Likert 척도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조사 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만을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적용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정서지능의 근원으로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주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들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과 동시에 상담현장에서 부모상담시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상담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인숙(2005). 아동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 황혜정(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41.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주(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199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화영(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용린(1996). *한국에서의 정서 지능 측정 연구*. 서울 : 세종문화회관.

문용린(1997).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 감성지능*. 서울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77-89.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 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혜경(2000).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혜숙 ·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1), 163-175.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환 · 김현지(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8(1), 103-119.

- 이인숙(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차가 성취지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78.
- 이현이(2001).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용(1994).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지(2003). 양육태도, 정서지능,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홍규(2000). 아버지와 자녀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신 · 김광웅(2003). 아버지의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소외감 연구. *아동연구*, 16(2), 29-48.
- Bowlby, J.(1971). *Attachment(vol.1)*. Attachment and los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Bornstein, P., Fitzgerald, M., Pieniadz, J., & D' Ari, A.(1993).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s a Predictor of Early Adolesc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4), 448-471.
- Carkhuff, R. R.(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hip*, Vol I ,II.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H. Freeman.
-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Galvin, K. M., & Brommel, B. J.(1982).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Illinois : Scott, Foresmand and Copany, 6.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 Ginott, H. G.(1965). *Between Parent and child :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New York : Macmillan company.
- Goleme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Gorden, T.(1975). *Parents effectiveness training*. N. Y. : Peter Wyden.
- O'Neil, J.(1996). On emotional intelligence : A conversation with Daniel Goleman. *Educational Leadership*, 54, 6-11.
- Putallaz, M., & Sheppard, B. H.(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330-355).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Co. Feldhusen
- Rosenthal, R.(1977).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San Francisco : Jossey-Bas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Mayer, J. D.(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45-267.
- Spitz, R. A.(1946). *Analytic depression*. I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 New York : International Unuversities Press.
- Sroufe, L. A., Schork, E., Motti, F., Lawroski, N., & Laffreniere, P.(1984).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e. Izard, J. Kagan, & R. B. Zajonc(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pp. 289-319).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년 2월 28일 투고 : 2006년 5월 11일 채택